

# 與 “선별+전국민 동시 지급” 설 앞 재난지원금 띄우기

### 최고위원회의...이낙연·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시작하겠다” “국민 위로·경기활성화 필요”...이번주 당정협의·연휴 끝 본격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둔 8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지원에 더해 경기진작 차원의 '전국민 지원금'을 동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취약·피해계층에 위로를 드린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를 서둘러 달라”며 “영업제한·금지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각종 부과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면서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를 동시 실시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주 기초적 당정협의를 시작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 방역수칙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국민 위로와 경기활성화 차원의 지원금도 필요한만큼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서는 이르면 이달 내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안에 선별 및 보편 지원금이 모두 포함되고, 지급 시기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전국민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논의가 4·7 재보궐선거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공세에도 반박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해 적극적 피해보상이 절실하다”면서 “필요한

예산집행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집행하지 말자’는 국민의힘 주장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이자 전형적 정치선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위 소속 의원 간 실무 당정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홍 부총리가 ‘선별·보편 동시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여진이 남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비공개로 개최하려 했던 당정 일정이 알려지면서 당에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냉랭’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김기현 의원 등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황희 송곳 검증 예고

### 오늘 문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생활자금 출처 의혹 거론

국민의힘은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5000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희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수천만 원대 자녀 학비, 해외 가족여행 경비 등 각종 생활자금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황 후보자의 ‘60만원 생활비’ 해명을 꼬집은 것이다.

배 대변인은 “황 후보자의 투철한 절약정신”, “대단한 살림 내공”이라면서 “전세대출금도 출판기념회 수입으로 매우고, 식비는 명절에 들어온 선물로 해결하고, 셀프미용으로 부가지출까지 줄이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교했다. 보좌진 10명과 함께한 9일간의 스페인 출장 경비로

577만원의 정치자금만 지출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문체부장관이 아니라 기재부장관으로 대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이름(황희)에 걸맞은 품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라며 “‘오병이어 장관’의 실재를 국민 앞에 밝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위원인 이용 의원은 황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조기유학비를 절감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미국으로 허위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무용을 전공한 배우자가 지난 2011년 학생 비자인 F1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가면서 딸을 동반해 5년간 머물다가 귀국했는데, 당시 자녀 유학비를 아끼려는 부모들 사이 성행한 편법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 국회 외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채택 거부 입장을 강행한다면, 여당은 단독으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뒤 퇴장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를 파탄 낸 장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회전문 인사로 다시 외교부 장관이 되겠다고 나서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與 “가짜뉴스 언론사·포털 징벌적 손해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8일 언론사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내세우며 관련 입법 의지를 다졌다.

당 미디어·언론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TF가 추진 언론개혁 법안을 놓고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서 제기된 데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TF는 유튜브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던 시점에는 이미 다른 의원

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 중재법을 발의한 상황이었다”라면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언론 개혁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냈던 정청래 의원은 “언론 피해는 그 어느 업종보다 피해가 크다”면서 “굳이 언론만 빼고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걸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라면서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법안이 언론 자유를 탄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인터넷이라는 상수도관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면 전국으로 일시에 퍼져버린다.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포털사이트 기사에 대한 ‘블라인드’(열람 차단) 청구 도입방안에 대해 “통신망이 발달한 요즘은 허위사실이 빛의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김희재, 신축 건물에 지역예술작품 우선 설치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8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지역문화예술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금 출연시에는 출연금을 해당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 문화예술인의 경우, 전시나 판매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현행법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며 건축주가 출연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또한 국가 전체

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30% 이상을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약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종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 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식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김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